

# 중국, 원유 북한수출 8% 증가

## 해관통계, 3월 10만6000톤 수출 ... 매년 100만톤 공급 추정

중국은 3월 북한으로 보낸 원유 수출량이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3월 북한에 수출한 원유는 10만6000톤으로 2012년 3월보다 늘어났으며, 1/4 분기에도 15만9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했다.

일부 외신들은 2월 중국의 원유 북한수출이 전혀 없었다고 전하며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제재로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과 2011년에도 2월에는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북한에 매년 50만톤 이상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해관당국은 북한 수출량이 2010년 52만 8000톤, 2011년 52만6000톤, 2012년 52만3000톤으로 집계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에 매년 50만톤 가량의 원유를 무상 원조하고 있지만 무역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는 매년 100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의 4분의3을 중국이 제공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20일(현지시간) 로스탐 카세미 이란 석유장관은 북한 수출과 관련한 북한-이란 정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24>